

“축소교섭 원하면 전향적 안 제출하라”

12차 교섭 ... 금속노조 “원안 수용하고 교섭 속도 내야”



히 부담스럽다” 고 말했다. 또한 AI 요구안과 관련해 “기존 신기계·신기술 단서 삭제 요청을 수용하고 노조 요구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술’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사측 제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안 수용을 압박했다. 김상만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초기업교섭 관련 요구안에 대해 “1항 효력 확장 부분에 덧붙인 조건을 삭제하라”며 인공지능(AI) 요구안에 대해서도 “조합원 업무·인사 정보 수집 내역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 사측에게 무슨 부담인가. 원안대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 노사 간 합의로 정부를 견인해야 한다”며 “주 5일제도 60세 정년 연장법도 노조의 선제적인 요구와 지속적인 투쟁이 있었기에 정부의 법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며 사측에 전향적인 안 제출을 촉구했다.

13차 교섭은 오는 18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다.

금속노조가 사용자협의회에 축소교섭 전환을 위한 전향적인 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선제적 노사 합의를 통해 정부를 견인해내자”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2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7차 제시안을 통해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대정부 요구>와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사업장 보충협약 반영>안을 수정하여 제출했다. 이어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정년연장 관련 요구안은 축소교

섭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대정부 요구>에서 ‘산별교섭’을 ‘초기업교섭’으로 수정하고, 효력 확장 조항에 ‘개별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사업장 보충협약 반영> 요구안은 인공지능기본법상 정의를 따른 ‘인공지능(AI) 기술’로 일괄 수정해 제출했다.

박근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금속산업 최임과 정년연장 관련 제시안은 축소교섭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면 터놓고 이야기하겠다”며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이 초기업교섭까지 담당하는 것은 상당